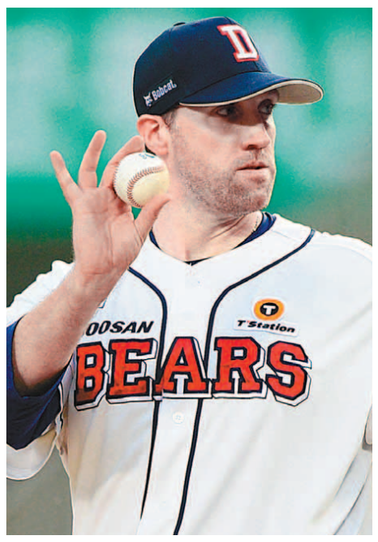
SK 천하·15승 위업 린드블럼…흥행은 빨간불

SK 거침없는 1위…NC-KT 5위 경쟁
린드블럼, 다승·ERA·탈삼진 등 1위
반발력↓ 공인구, 경기당 홈런 1.45개
800만 관중 비상…경기당 1만명대 뚝

'2019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가 18일로 전반기를 마쳤다. 20일 창원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을 전후로 일주일을 쉰 뒤인 26일 재개된다. 팀간 전력차가 극심했다. 승률 5할을 기준으로 일찌감치 5강5약의 구도가 부각됐고, SK 와이번스의 독주체제로 마무리됐다. 후반기에는 1위를 제외한 상위권 내 순위재편, NC 다이노스-KT 위즈의 5위 경쟁이 불을 뿜을 전망이다.


두산 린드블럼

●SK의 적은 SK일 뿐!

SK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았다. 5월 30일 두산 베어스를 2위로 끌어내린 뒤로는 거침없이 1위를 달렸다. 6월 22일 50승, 7월 11일 60승을 잇달아 선점한 뒤로는 더욱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시즌 상대전적에서도 열세가 없다. 4승 1무4패의 KIA 타이거즈를 제외한 8개 팀에는 모두 우세했다. 한때 1위를 다툰 두산에 6승5패, 키움 히어로즈에 7승 5패로 앞섰다. LG 트윈스(8승3패), NC(8승4패)는 압도했다. 144게임 체제에서 역대 최다승·최고승률을 작성한 2016년의 두산(93승1무50패·0.650)마저 넘어설 태세다. 2010년 이후 9년 만에 다시 정규시즌-한국시리즈 통합우승에 도전할 일만 남았다.

●공인구 교체가 불러온 '투고타저'

2014년부터 기승을 부린 '타고투저'를 완화하기 위해 KBO는 올해부터 공인구의 반발력을 낮췄다. 0.4134~0.4374였던 반발계수를 0.4034~0.4234로 조정했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홈런이 크게 줄었다. 2014년 2.02개→2015년 2.10개→2016년 2.06개→2017년 2.15개→2018년 2.44개로 증가세를 보이던 경기당 홈런이 올 시즌 전반기에는 1.45개로 급감했다. 1.39개였던 2013년으로 되돌아가는 흐름이다. 지난해 34명에 이르렀던 3할 타자도 20명 안팎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반면 리그 전체의 평균자책점(ERA)은 떨어지고 있다. 이 또한 2013년으로 수렴하고 있다.

●34년만의 전반기 15승 투수…외국인 천하

두산 에이스 조쉬 린드블럼이 전반기 마운드를 평정했다. 20경기에서 15승1패, ERA 2.01, 삼진 126개다. 다승은 물론 승률(0.938), ERA, 삼진 모두 1위다. 게다가 전반기 15승은 1985년 김일융 이후 무려 34년만이다. SK 앙헬 산체스(13승2패·ERA 2.28), LG 타일러 윌슨(9승5패·ERA 2.55)도 눈부셨다. 타자 쪽에선 최다안타 1위를 질주한 두산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가 새 바람을 불어넣고, 견고한 타점의 벽을 쌓은 키움 제리 샌즈가 뒤를 받쳤다. 올 시즌 전반기에도 외국인선수들의 활약은 변함없었다.

●비상등 켜진 흥행…감소추세 확인한 관중

관중이 줄고 있다. 개막 463경기만인 14일 12년 연속 500만 관중에 성공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37경기나 늦은 기록이다. 경기당 1만 명대로 감소한 관중 추이가 후반기 반등하지 못한다면 2016~2018년 3년 연속으로 달성한 800만 관중에는 미달할 수밖에 없다. 경기력과 판정의 질을 놓고 갑론을박이 지속된다면 KBO리그의 흥행에 켜진 비상등은 적색등으로 바뀔 수도 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KBSA, 기장 세계청소년야구 대표팀 구성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부산시 기장군 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열리는 '2019 WBSC 기장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18세 이하)'에 참가할 청소년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와 선수를 18일 발표했다. 2020 KBO 신인 1차지명을 받은 이주엽(성남고·두산), 오원석(야탑고·SK), 이민호(휘문고·LG), 소형준(유신고·KT), 최준용(경남고·롯데), 박주홍(장충고·키움) 등 20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5월 선임된 이성열 감독(유신고)을 보좌할 코칭스태프로는 대구고 손경호 감독(수석 겸 타격코치), 군산상고 석수철 감독(야수·수비코치), 원주고 안병원 감독(투수코치)가 포함됐다. 2008년 이후 11년만의 우승을 노리는 대표팀은 8월 중순 소집 예정이다.


김현수 선제홈런…'스윕은 안돼!' LG 김현수(오른쪽)가 18일 인천 SK전에서 1회 우월 솔로홈런을 때려낸 뒤 김호 코치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LG는 12-5로 이겨 주중 3연전 2연패 뒤 1승을 거두며 전반기를 4위로 마무리했다.
인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이대호 "FA 상한제? 보상제도 폐지만 팩트"

"전달 과정일뿐…아직 말할 단계 아냐"


선수협회장 이대호

"이제 말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 이대호(37·롯데 자이언츠)가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최근 붉어진 '프리에이전트(FA) 상한제 수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구단들이 상한선으로 이미 제안했던 4년 80억 원 계약을 선수들이 수용하는 대신 FA 자격 취득기간 1년 축소, 보상규정 완화, 최저연봉 인상 등 다른 안건들을 구단측이 받아들여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대호는 "조건부 수용이라는 말을 할 단계도 아니다. 이제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구단 쪽에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제시한 게 아니다. 우리는 '보상제도' 철폐만을 이야기했다. 구단들이 제시한 4년 80억 원 내용을 수용하는 대신, 선수들이 자유롭게 팀을 옮길 수 있게 보상제도만 없애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FA 제도에서는 타 구단이 FA 계약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 원 소속 구단에 대상자의 이전해 연봉 200%와 보상선수 1명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혹은 보상선수 없이 연봉의 300%를 지급해야 한다.

선수 유출을 꺼리는 구단이 FA로 인한 출혈을 막기 위해 시장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최근 들어서는 FA 시장에 나오는 베테랑 선수들이 '미아'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대호는 이를 설명하며 "보상제도(선수·금액 포함) 한 가지만 없애달라는 이야기다"라고 누차 강조했다.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선수들도 최근 구단의 어려움을 잘 안다. 또 팬들의 이야기도 듣는다. 모든 걸 종합해 구단 측과는 올스타 휴식기에 만나기로 했다. 아직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광주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17억, 11억, 20억, 40억, 16억.. 로또 1등 당첨자들 비결은?
로또플레이 분석번호 받아 구매한 결과 1등 당첨! 가입문의 1666-6645



지난 834회 로또 1등 당첨자 이 씨는 "로또플레이 측에서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1등 분석 번호로 로또복권을 구매하였고, 토요일 저녁 8시경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번호 6개가 모두 일치, 로또 1등(16억 9천만 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이에 이 씨는 로또플레이 골드회원(3년제)으로 가입 후, 업체 측에서 보내준 분석 번호로 1년 동안 한주도 빠짐없이 꾸준히 구매했던 게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전했다.

정 씨(47세/여성) 역시 골드회원으로 가입한지 5일만 로또 1등(12억 6천만 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며 큰 화제가 되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로또플레이 당첨 후기 게시판에는 로또 1등 당첨자라고 밝힌 50대 여성이 40억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뿐만 아니라 2등과 3등이 동시에 당첨된 인증사진과 후기를 전하며 '로또플레이'의 신뢰성과 분석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로또플레이'는 요행을 넘어 정확한 통계와 확실한 당첨 사례들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또정보 업체다.

로또플레이는 한국 브랜드 고객 만족 지수 1위,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 한국 소비자 선호도 1위 외 총 15개 부문 대상 수상을 하였고, 실제 1등 당첨자를 배출하면서 지금까지 1등 232회, 2등 1,222회, 3등 40,209회 조합을 배출해내고 있다. 실제 1등 당첨 복권과 당첨금 지급 영수증까지 공개하고 있어 신빙성까지 더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1등, 2등, 3등 당첨 후기들은 로또플레이(lottoplay.co.kr)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로또플레이'는 골드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님들께 10년이 넘는 분석 노하우와 자체 개발한 1등 분석 시스템(통계기반)을 통해 분석 번호를 매주 핸드폰 문자로 전송해 준다. (20게임/수량 변경 가능)

로또플레이 골드회원 가입 비용은 6개월 62,000원, 1년 88,000원, 3년 158,000원으로 대표번호 1666-6645 전화 한 통으로 가입이 간편하다.
(카드 무이자 5개월 할부 가능)

홈페이지 : LOTTOPLAY.CO.KR
가입문의 : 1666-6645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17억 1등 당첨 영수증

로또플레이 가입문의 1666-6645